

조이스의 민족주의: “타라로 가는 지름길은 호울리헛을 거쳐야”

진 선 주

시작하는 말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 주인공 스티븐 데덜러스와 그의 대학급우이자 “무엇보다도 먼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202)인 데이빈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다.

- 이 민족, 이 나라, 이 도시의 생활이 나를 낳아 길러주었어. 나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하겠어.
-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같이 일하지 않고? 자네는 마음속으로는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자만심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203).

『초상』은 자전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이라 주인공을 작가 조이스로 볼 수 있다면 조이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자기를 낳아 길러준 민족에게 고마움을 알고 그 보답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빈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만심이 강하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합심하여 민족주의 운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데이빈과 같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이스는 어떤 성격의 민족주의자인가? 그가 지향하는 민족주의란 대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이 글을 통하여 풀어보려고 한다.

보편적인 의미의 민족주의자라면 데이빈처럼 “게일인 운동경기진흥협회 Gaelic Athletic Association”(1884년 창립)와 “게일어 부활연맹 Gaelic League”(1893년 창립)의 회원으로서 대영제국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적,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아일랜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정치성을 띤 현장 문제에는 냉담한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의미의 민족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기에 이 글을 “조이스와 민족주의”라고 하지 않고 “조이스의 민족주의”라고 이름하였다.

조이스 특유의 민족주의를 살피기 위해 다음 두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하나는 조이스의 대학시절에 한창 전개되고 있던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 대한 그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인 출판인과 고투를 벌이면서도 『더블린 사람들』의 출판을 관철하려한 그의 진의 파악이다. 이 두 퍼스펙티브를 차례대로 검토, 규명하기로 한다.

문예부흥운동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

파넬 Charles Stuart Parnell(1846-1891)이 세상을 뜬 1890년대 초부터 아일랜드 자유국 Irish Free State이 출범한 1922년경(이 해는 『율리시즈』가 출판된 해이기도 함)까지 약 30년 사이에 펼쳐진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발판으로 문화적인 사회운동을 통하여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탄압에 노출되기 쉬운 정치운동보다는 문화운동을 새롭게 전개하는 것이 독립의 여건조성에 효과적이라는 기류가 민족주의 진영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9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아일랜드의 전설, 신화, 민속에 대한 발굴과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힐링, 아일랜드식 축구와 같은 지난 날의 운동경기를 부활시키자는 운동이 맹위를 떨치는가 하면 폐어가 되다시피 한 아일랜드어를 되살려 생활어와 공용어로 다시 삼겠다는 운동도 기세를 뽐냈다. 때를 같이하여 연극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중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토속적인 내용의 공연으로 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W. B. 예이츠가 있었다. 1892년에

는 더글러스 하이드(1860-1949)¹⁾와 함께 “민족문학연구회 National Literary Society”를 조직하고, 1893년에는 문예부흥운동의 대명사격인 『켈트족의 황혼 *The Celtic Twilight*』을 내놓았다. 1899년에는 그레고리 여사 등과 함께 “아일랜드 문예극장 Irish Literary Theatre”를 설립하는가 하면 1903년에는 역시 그레고리 여사 등과 함께 “아일랜드 민족극장협회 Irish National Theatre Society”를 창설하여 그 전용극장으로 1904년에 애비극장 Abbey Theatre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문예부흥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일랜드 문예극장의 전신으로 1892년에 조직된 바 있는 “민족문학연구회(National Literary Society)”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하이드가 행한 “아일랜드문화의 탈 영국화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De-Anglicizing Ireland*”이라는 취임사에 명시되어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아일랜드 말과 풍습 중에서 좋은 것은 보존, 부활시키고 영국적인 태도와 풍습의 무분별한 모방은 배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적인 생활양식과 사고 습성의 모방은 문화적인 약점의 표시라는 것이었다(웰치 312). 요컨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은 전통적인 민족 문화의 보존, 육성과 영국문화의 배격이 그 핵심적인 에토스였다.

이 정치성을 띤 문화적 민족주의운동은 조이스가 대학에 다니던 1900년 전후에 활기차게 펼쳐졌다. 특히, 그가 다닌 유니버시티 대학은 이 운동의 거점이기도 했다. 영국색 일소라는 그들의 목표가 프로테스탄트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가톨릭계의 이 대학 건학이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민족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대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총장 딜레니 신부는 피어스 교수 Patrick Pearce(1879-1916: 뒤에 부활절 의거에 참가하여 감옥에서 총살당함)더러 야간에 아일랜드어 강좌를 설강하도록까지 하였다. 아일랜드 문예극장이 창립된 것은 조이스의 대학 일년 때였다. 엔티엔트 연주실에서 그 창립기념으로 예이츠의 『캐슬린 백작부인 *The Countess Cathleen*』공연을 가졌다. 이 초연이 끝나자마자 대학생들과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예이츠를 규탄하는 소동이 벌어졌

1) 이때 더글러스는 “민족문학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다음해(1893년) “게일어 부활연맹”을 창설하여 회장이 되는 바람에 이를 곧 사임했다. 그는 학자, 문인, 정치가로 아일랜드공화국의 초대 대통령(1938-45)이 되었다. 아일랜드어로 단막극을 쓰기도 했는데 그레고리 여사의 영역으로 된 그의 작품을 보고 조이스는 “부적절하면서도 무익한... 수준이하의 드라마”라고 혹평한 적이 있다(『비평문집』 104).

다.²⁾ 아일랜드 시골사람들을 기아에 허덕이는 무식장으로, 캐슬린이 돈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도록 묘사한 것은 아일랜드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곧 학우들 사이에 항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즐겁게 이를 관람한 그는 영혼을 파는 행위보다는 가난을 구제 하겠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극장쪽에서 자기작품(창작이든 번역이든간에)은 물론 대륙의 걸작들도 수시로 공연하리라는 약속을 했기에 그 약속이 언젠가는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약속과는 달리 외국작가의 작품은 한편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다. 문예극장의 창립멤버인 마틴 Edward Martyn(1859-23)이나 무어 George Moore(1852-33)의 전통적인 작품만 되풀이할 뿐 대륙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사실주의 연극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³⁾ 그러던 차에 (1901년 10월초) 다음 상연작품은 하이드의 희곡들, 그것도 하나는 아일랜드어로 쓴 희곡(*Casadh-an-Sugain*)이고, 다른 하나는 예이츠와 무어가 수집한 아일랜드 전설에 토대를 둔 환상적인 내용의 작품(*Diarmuid and Grainne*)임을 알고 크게 실망한 조이스는 문예극장을 성토하는 평론을 썼다. 이것이 “오합지졸의 날 The Day of Rabblement”(1901년 10월 15일)이다.⁴⁾ 대학교 3학년때 쓴 이 평론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조이스는 이 글에서 “현대 연극의 불모성과 허위에 대한 항거운동으로 출발한 아일랜드 문예극장”(『비평문집』 69-70)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극작가로서의 창의성이라곤 별로 없는 예이츠나 마틴, 무어 등의 작품만 상연함으로써(71)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민족의 오합지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70)고 울

2) 이 장면은 『초상』의 5장에 묘사되어 있다(226).

3) 조이스는 입센의 마지막 희곡 『죽은 우리가 눈을 뜰 때』를 읽고 “입센의 새로운 드라마”라는 제목의 서평을 써서 런던에서 발간되는 저명한 문예지 『포트나이트리 리뷰 Fortnightly Review』(1900년 4월 1일)에 실린 바 있다. 입센으로부터 고맙다는 친필편지까지 곧 받았다.

4) 이는 원래 대학교지 『성인 스티븐즈 St. Stephen's』창간호에 발표하려 하였으나 지도교수 헨리 브라운 신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총장을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교지편집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의 책임이라는 총장의 말을 듣고, 같이 거절당한 학우 스케핑턴 Francis Skeffington(1876-1916: 부활절 의거때 영국군에게 처형당함)과 함께 팜플렛으로 자비 출판했다. 같이 실은 스케핑턴의 글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대학 문제의 잊혀진 국면”이다

분을 토한다. 50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새 연극운동은 이미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편견과 오해와 야유와 싸우면서 대륙 문학의 주류로 자리잡게 된 것은 불굴의 신념이 그 원동력을 삼기시키면서 아일랜드의 연출가들은 검열이 무서워서 입센과 톨스토이, 하우프트만의 작품을 상연하지 못하는 것은 “발전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고 힐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촉구한다.

대중의 판단을 좌우하는 폭력을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기적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는 예술가에게 문학적인 모델을 결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70)

조이스는 “예술가가 자기 주변의 비속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결코 참다운 예술가가 아니듯이”(71-72) 아일랜드 문예극장으로 대표되는 근시안적인 문예부흥운동은 대중영합에만 집착해있기 때문에 예술다운 예술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진보의 대도에서 벗어나 표류만 거듭하고 있다”(71)고 규탄한다. 여기서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회의 자유주의적 진보에 큰 관심을 가진 정치적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켈리 27). 이러한 조이스에겐 국제적인 문학의 대세와는 담을 쌓고 있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은 허탈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규탄의 대상일 뿐이다.

조이스는 이 평론을 발표한 이후로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 대하여 냉담 내지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에서 게이브리얼 콘로이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컨자매가 베푸는 연례적인 주의 공현절 파티에 참석한 대학교수이자 서평가인 콘로이는 몰리 아이버즈양과 랜서춤의 파트너가 된다. 그녀는 데이빈이 힐링스틱을 가지고 다니듯이 “아일랜드적인 도안이 새겨진 커다란 브로치를 옷섶에 달고 다니는”(187) 열렬한 문예부흥운동가이다. 친영지(*The Daily Express*)에 콘로이가 서평 칼럼을 맡아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그를 “친영파”라고 몰아부친 뒤 어조를 낮추어 말을 건넨다.

- 콘로이씨, 금년 여름 아란섬에⁵⁾ 여행가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꼬박

5) 아일랜드 서해안 골웨이에서 조금 떨어진 섬으로, 이 섬 사람들은 지금도 아일랜드어를 쓰고 있다. 문예부흥주의자들은 이 섬을 일종의 아일랜드적인 유토피아로 간주

- 한 달 머무를 예정이에요. 대서양쪽이라 멋진 거예요. 같이 가셔야죠. 클랜 시씨도 가기로 되어있어요. 키펠리씨도, 캐슬린 카니양도요. 부인도 같이 가신다면 더욱 멋진 거예요. 부인께서는 콘나크트 출신이지 않으세요?
- 그녀의 선조들이 그래요, 게이브리엘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 그러나 콘로이씨는 가셔야지요.
 - 실은 어디 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어서...
 - 어디로요? 아이버즈양이 물었다.
 - 글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년 몇몇 친구들과 싸이클 여행을 해요. 그래서...
 - 그래서 어디로요?
 - 글썄요. 우리는 보통 프랑스나 벨기에나 독일로 간답니다. 콘로이는 어색하게 말했다.
 - 그런데 자기나라 땅은 놔두고 왜 프랑스와 벨기에로 가세요? 아이버즈양이 물었다.
 - 글썄요. 대륙의 언어와도 접촉도 하고 싶고, 기분전환도 하고 싶어서예요.
 - 접촉해야될 당신 자신의 언어가 있지 않아요. - 아일랜드어라는?
 - 글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일랜드어는 내 언어가 아니랍니다.
 - 그런데 콘로이씨가 잘 모르는 찾아야 될 자신의 땅이 있잖아요.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나라가 말이예요.
 - 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콘로이씨는 갑자기 되받아 쳤다. 나는 우리나라에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요. (188-189)

콘로이의 지역성의 배경과 대륙문학에의 경도는 조이스가 “오합지졸의 날”에서 보여준 입장 그대로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조이스는 문예부흥운동에 관한 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언어를 비롯한 제반 아일랜드적인 문제에 신물이 난다고 역정까지 내는 것은 환멸을 안겨준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⁶⁾

했다. J. M. 싱도 예이츠의 권유로 거기에 가서 아일랜드어를 배우면서 그곳의 토속적인 생활을 작품화해서 이 섬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 6)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어느 어머니”에서 문예부흥운동을 조롱까지 한다.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카니부인은 딸의 이름 덕을 보기로 결심하고 가정교사를 불러들여 딸에게 아일랜드어를 가르친다”(137). 딸 캐슬린 카니양은 예이츠의 『캐슬린 공작부인』의 이름과 같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 연주회에 피아노 반주자로 출연시키는데 성공한 그녀는 입장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연도중 계약금 전액을 받아내려다가 망신만 당하고 만

그런데, 여기서 아일랜드어가 조이스의 언어가 아니라면 조이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아일랜드 문화부흥운동은 아일랜드어 부활운동과 연극운동이 그 2대 줄기였다. 조이스는 대학에 설강되어 있는 피어스의 게일어 강의를 한번 듣고는 발을 끊었다. 『초상』에서 데이빈으로부터 “아일랜드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첫시간에 한번 나온 후 과목을 취소한 이유가 대체 뭐야?”(202)는 질문을 받고 스티븐/조이스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팽개치고 다른 언어를 선택했잖아. 그들은 소수의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방치했어. 그들이 저지른 빚을 내가 내 생명과 내 몸을 바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왜, 무엇 때문에?”(203). 선조들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아일랜드어는 자기가 의무감을 갖고 되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되찾아봤자 그 효율성도 당장 의문이다. 영어가 아일랜드어를 대체한지도 수세기가 넘어 일상 생활어와 공용어로 토착화한 오늘 국수주의적인 이유로 정력낭비를 하면서까지 영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영어를 갈고닦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는 나의 언어이기 이전에 그의 [교무처장의, 즉 영국인의] 언어다... 나는 이런 언어를 쓰거나 말할 때마다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어. 이토록 친숙하면서도 이토록 낯설은 그의 언어는 언제나 나에게 습득어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들을 만들거나 받아들이는 적은 없으니까 말이다. 내 목소리에 그 말들을 몰아넣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을 뿐이야. 내 영혼은 그의 언어의 그늘 아래서 항상 괴로워하고 있어. (189)

이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이미 친숙해진 영어는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욱 연마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언어라고 본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민족의 오합지졸” 신세를 면하려면 언어면에서도 국수주의

다.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짜지 못하는 주최측이나 저 질 싸구려 출연진이나 공연도 중 자리뜨기를 예사로 하는 관객이나 모두 오합지졸임을 보여준다. 그런 행사에 계획적으로 딸을 참가시켜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다가 창피만 당하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이스는 당시의 아일랜드 문화계가 얼마나 가관인가를 풍자한다.

에의 집착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각도를 달리하여, 문예부흥주의자들의 문학의 창조성에 대한 조이스의 진단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부흥운동의 대명사격인 『켈트족의 황혼 *The Celtic Twilight*』⁷⁾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예이츠가 슬라이고 지방의 시골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집한 민속과 전설을 바탕으로 엮은 우울한 분위기의 운문과 산문의 모음집이다. 이런 맥락에서 6년 뒤에 나온 후속 작품이 『갈대밭에 부는 바람 *The Wind Among the Reeds*』(1899)이다. 이는 전자보다 훨씬 체계적인 시집으로 우울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절정을 이룬다. 이 시집에 “마이클 로바티즈는 잊어버린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Michael Robartes Remembers Forgotten Beauty*”라는 시가 있다. 이 시를 조이스는 『초상』의 일기에서 거론한다.

마이클 로바티즈는 잊혀진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그의 두팔로 그녀를 감싸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지 오래인 그 사랑스러움을 품속에 껴안는다⁸⁾.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랑스러움을 내 품속에 꼭 껴안고 싶다. (251)

예이츠는 그의 작품에는 감지할 수 있는 실체(“아름다움”)가 있다고 노래하지만 조이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부인한다. 부흥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그의 문학에서 품속에 껴안고 감촉할 수 있는 실체는 결코 창조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이스와 예이츠 예술의 차이의 하나다. 예이츠가 과거지향적이라면 조이스는 미래지향적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는 “켈트족의 황혼”과 같은 심미적 도피주의가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기포드 286).

7) 조이스는 이를 『피네건의 경야』에서 “cultic twalette”(344. 12)라고 비꼰다. 맥휴에 의하면, “cul”(영어의 cull)은 불어로, “엉덩이, 궁둥이, ((구어)) 바보, 천치”의 뜻이고, “twalette”(영어의 toilette)도 역시 불어로 “화장실, 변소”를 의미한다(344). 그러므로 이는 바보들의 화장실 또는 엉덩이 화장실이라는 뜻이다.

8) “마이클 로바티즈는... 그 사랑스러움을 품속에 껴안는다.”: “마이클 로바티즈는 잊혀진 아름다움을 기억한다”는 시의 도입부. 이 시는 뒤에 “그는 잊혀진 아름다움을 기억한다”(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New York, 1956)로 시제를 바꾸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When my arms wrap you round I press/ My heart upon the loveliness/ That has long faded from the world...”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이 아직 지니지 못한 예술적 아름다움, 다시 말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학의 창조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확신하고, 『초상』의 끝에서 이런 과업을 자기가 수행하겠다고 선언한다. “백만번이라도 경험의 실체에 부딪혀,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내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의식을 버리기 위하여 나는 떠난다”(252-253). 조이스는 여기서 “민족”을 언급함으로써 자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사회의 구성원, 즉 민족적인 존재임을 나라 안팎에 거듭 천명한다.

어디로 떠나는가? 어디로 가야 이 비장하고도 원대한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는 “타라로 가는 지름길은 호울리헛을 거쳐야한다”(250)는 스티븐/조이스의 말이 답해준다. “타라”는 더블린 북서쪽 21마일 지점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고대 통일 아일랜드왕국의 전설적인 수도였다. 아서왕의 캐미라트에 비길 만한 이 이상적인 수도에는 토마스 무어 Thomas Moore(1779-1852)의 시에서처럼 하프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고대 켈트문화의 중심지이자 유럽문명과학예의 중심지이기도 했던(노튼 906) 타라는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황금시대의 상징이었다. 타라적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합지졸이 판을 치는 더블린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더블린에서 연락선이 떠나는 웨일즈의 항구 호울리헛을 둘러 호우머와 단테의 문학이 있고, 입센과 하우프트만, 그리고 플로벨의 문학이 있는 유럽대륙으로 가야했다. 그 길만이 자기를 낳아준 민족과 국가와 도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다.

조이스는 스티븐의 입으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할 이유를 밝힌다. “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면 날지 못하도록 그물을 덮어씌우는 곳이야... 민족주의니 아일랜드어니 가톨릭이니 떠들어대지만 나는 그런 것을 그물로 보고 그 그물을 날아 넘겠네. 아일랜드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늑다리 암돼지 아닌가”(220). 그의 영웅이자 아일랜드 민족의 영도자인 파넬의 몰락을 부른 동료들의 배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배신을 능사로 아는 아일랜드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그 제물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륙으로 건너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글쓰기에 전념하기로 한다.

『더블린 사람들』을 쓴 목적

대륙으로 건너가 조이스가 맨 처음으로 내어놓은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1914)이다. 집필에는 3년(1904-1907)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출판교섭을 시작하여(1905년) 그것을 관철하는 데는 만 9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이토록 긴 시간 세월동안 조이스는 출판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출판인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여기서는 주로 영국인 출판인 그랜트 리처즈와 주고받은 편지의 분석을 통하여 『더블린 사람들』을 쓴 까닭을 캐기로 한다.

우선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조이스의 더블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조이스는 트리에스테에서 런던의 리처즈에게 원고를 보내면서 더블린은 대도시라는 사실부터 강조했다. 이 도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출판을 수락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리처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블린은 “수천년간의 유럽의 수도의 하나요, 대영제국 제 2의 도시요, 베니스보다는 약 3배나 큰 도시”이나 “아직 어떠한 작가도 이 도시를 세계에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서한집』 2권 122).

그러나 그가 제시하려는 더블린의 모습은 결코 대도시의 위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조이스가 문학활동을 시작한 20세기 전후의 더블린 현실은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사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빈사상태 바로 그것이었다. 문예부흥운동을 둘러싼 문화계의 현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정계의 실정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파넬 이후의 독립쟁취 운동은 사분오열 상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리피스 Arthur Griffith(1872 -1922)가 영도하는 신페인 *Sinn Fein: We Ourselves* 운동(1907년 창립)은 영국인 배척이란 미명아래 인종차별을 일삼았다.⁹⁾ 민족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변절하여 영국총독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¹⁰⁾ 영국정부에 아부하여 돈벌기에 바쁜 자도 부지기수였다. 80퍼센트가 넘는 인구의 신앙생활을 담당한 가톨릭 성직자들은 교조주의에 안

9)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율리시즈』의 “사이클롭스”장에 나오는 “시민”이다. 이는 “게일인 운동경기 진흥협회”를 창설한 마이클 커색(1847-1906)을 모델로 한 인물로 국수주의자이자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이다.

10) 그 대표적인 인물은 더블린시정집행관을 지낸 파넬의 친형 존 하우어 드 파넬(1843-1923)과 파넬의 비서관 티머시 힐리(1855-1931)일 것이다. 힐리가 파넬을 배신하자 당시 9세 소년이던 조이스는 충격을 받고 “힐리여, 너마저 Ex Tu, Healy”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는 전하지 않는다.

주, 시민들의 올바른 비판정신을 흐리게 하고¹¹⁾, 인구의 17퍼센트에 불과한 천영세력 개신교인들이 더블린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이들 밑에서 고용인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하층민들은 주로 부두의 날뎌팔이로 연명했다. 주거문제는 조이스 자신의 집안사정처럼 셋방살이가 주류를 이루었다. 도시빈민은 들어가는 가운데 거리에는 실업자와 알콜중독자, 걸인들이 득실거렸다. 젊은이들의 해외이민으로 결혼적령기를 놓친 독신남녀가 수두룩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술집에서 울분을 토로하며 날을 보내기 일쑤였다. “두 건달”의 콜리처럼 남의 등을 치고도 죄책감을 모르고, “하숙집”의 무니부인처럼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생활의 변화를 피하려는 의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블린”의 이블린처럼 그것을 실현할 용기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현재의 입지를 성찰해보려는 관심마저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타성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대륙의 도시들은 부와 산업의 발전상을 구가”하고 있는데 반해 더블린은 “이 지경의 빈곤과 무기력의 채널”(『더블린 사람들』 42)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의 오랜 식민통치의 적폐 때문이라고 조이스는 보았다. 그는 『올리시즈』에서 스티븐의 입을 통하여 “나는 대영제국과 로마 가톨릭교회라는 두 상전의 종”(1: 643-644)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서 파우어 Arthur Power에게는 이런 시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영국 통치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선적인 족쇄에 묶여있던 당시의 아일랜드는 좌절의 나라였다. 두 정복자 아래에서는 아일랜드적인 것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이 두 지배자의 악영향이 두꺼운 이블처럼 전국에 덮여 있었다”(파우어 182).

조이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그리하여 썩은 냄새가 물씬 나는 식민지 도시의 참상을 세계에 고스란히 알려야 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같은 편지에서 잇달아 말했다.

여기서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더블린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런던 사람”과 “파리 사람”은 둘 다 다른 작가들이 제목으로 이용한 바 있지만 이런 제목에선 도무지 기

11)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화화장면에서 데달러스씨가 하는 말을 보라. “우리는 신부들에게 짓밟힌 불행한 민족이야.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장날 때까지 항상 그럴 것이야”(37).

대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출판사의 출판예정광고 목록에서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책들이 더러 눈에 뜨인다. 그러므로 내 책이 출판되면 내 책에 물씬거리를 바라는 유달리 썩은 악취 때문에 독자들이 기꺼이 사 볼 것이다. (『서한집』 2권 122)

다른 영국인 출판인(William Heinemann)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피통치 국가의 작가의 입장에서 쓴 책임을 강조한다. “더블린 사람들’은 ... 관광객의 인상을 한데 묶은 것이 아니라 유럽적인 대도시의 하나인 더블린의 특수한 생활상을 재현코자 하는 시도이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아일랜드 사람이다”(『서한집』 2권 109).

출판인들에게 아일랜드 작가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더블린 사람들』은 가해자인 제국주의에 대한 고발로 들리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 않다. 핵심적인 목적은 피해자인 동포들의 정신적인 깨달음을 촉구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짓눌려 살아 썩 사람들 the gratefully oppressed”(42)의 잠부터 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더블린 사람들』의 맨 첫 스토리 “자매”를 쓴 직후에 친구 커런 C. P. Current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일련의 성령강림기도 *epicleti*”(『서한집』 1권 55)¹²⁾라고 말한 데서 입증된다. “성령강림기도”란 동방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미사때 면병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내리심을 비는 기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더블린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만 자고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자화상(“일상생활의 면병과 포도주”)을 보고 시민들 자신은 물론 모든 독자들이 “예수의 몸과 피”와 같은 존귀한 정신적인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어 도와달라는 염원을 담은 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에게 “이피퍼니”가 꼭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자매”로부터 “죽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15편의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담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에는 각양각색의 반신불수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신부의 임무가 과중하여 신경과민증으로 실성하여 “눈을 빼꼼 뜬 채 웃는 모습

12) 그 전문은 이렇다. “I am writing a series of epicleti - ten - for a paper. I have written one. I call the series *Dubliners* to betray the soul of that hemiplegia or paralysis which many consider a city.”(『서한집』 1권 55)

을 하고 죽은”(18) 신부가 있는가하면, 돈만 밝히는 타락한 혈색 좋은 신부도 있다. 새로운 생활의 개척을 위해 애인과 도피행을 약속해 놓고도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타지 못하는 “멍청한 짐승같은”(41) 처녀도 있고, 회사에서 받은 구박을 집에 와서 아들을 구타하여 분풀이를 하는 아버지도 나온다. 딸과의 스캔들을 미끼로 소심한 직장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사위를 삼는 하숙집 여주인도 있고, 딸을 이용하여 목돈을 챙기려다 망신만 당하는 어머니도 있다. 노래의 1, 2절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귀처럼 생긴 노처녀가 있는가 하면 여인의 구애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외로운 여인을 자살케 하는 냉혈한 노총각도 있다. 하녀를 유혹하여 담배와 용돈을 뜯어쓰는 건달이 있는가 하면 그 건달에게 빌붙어 사는 또 다른 건달도 있다. 술집 총계에서 미끄러져 혀를 다치는 알콜중독자가 있는가 하면 가구를 저당잡혀 술타령만 일삼는 불치의 여자 중독자도 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인생을 시작했으나 일찍이니 정치관을 수정하여”(43) 푸줏간으로 줄부가 된 어느 아버지는 아들더러 무조건 돈많은 외국인과 사귀라고 채근하기도 하고, 자당 입후보의 협담을 예사로 늘어놓으면서 술에만 눈독을 들이는 선거운동원들도 등장한다. 영국왕의 아일랜드 방문은 돈의 유입을 의미한다면서 공공연하게 환영연설을 주장하는 삼류정객이 있는가하면 현재 총독부 첩자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민족주의자인 채하는 정체불명의 하류 문필가도 끼어 있다. 부인으로부터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편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가장도 있고, 아내가 소녀시절의 죽은 연인 생각에 골몰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염을 불태우려다 실패하는 대학교수 남편도 있다. “두 정복자 아래에서는 아일랜드적인 것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다”는 조이스 자신의 말처럼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느 한 사람 건강한 인간성이나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이 없다. 한결같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붕괴된 20세기초의 식민지적 혼수상태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산송장같은 존재들만 득실거릴 뿐이다(카이버드 329). 조이스가 “일련의 성령강림기도”로 계획한 것은 이러한 산송장들이 하루빨리 의식을 회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새 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 달라는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조이스는 리처즈에의 편지에서 동포들을 일깨우려는 사명감을 “반들반들하게 닳은 거울”이라는 말을 써서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리처즈가 출판을 수락하고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반송하자 조이스는 재고를 요청하는 편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썼다.

내 작품에 쓰레기장의 악취와 낡은 잡초 그리고 고기찌꺼기의 냄새가 분분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귀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내가 반들반들하게 닭아 놓은 거울에 그들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볼 기회를 막아 아일랜드 문명의 진운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서한집』 1권 63-4)

거듭 말하거니와 『더블린 사람들』을 쓴 이유는 동포들의 정신적인 깨침을 촉구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동포들로 하여금 잘 닭은 거울에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똑똑히 보게 하여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갖고 아일랜드 문명의 발전에 동참케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리처즈가 “두 건달”, “맞상대들”, “은총”을 초들어 음탕한 부분, “빌어먹을 bloody”와 같은 비속한 어휘의 수정이나 삭제를 계속 요구하자 조이스는 절대로 용할 수 없다면서 『더블린 사람들』을 쓴 까닭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정신사의 한 장을 쓰려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더블린을 그 무대로 골랐는 바 그 도시가 마비의 심장부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무관심한 대중들에게 그것[마비의 심장부]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나는 대부분 철두철미 비속감을 풍기는 문체로 이를 썼다...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한선집』 83)

(이탈릭체 필자)

자신이 중태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무관심한” 동포들을 비위를 거슬러서라도 기어코 잠을 깨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 따라서 조이스가 출판교섭을 시작하면서 식민지 작가임을 강조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고발보다는 피해자인 동포에 대한 고발에 더 무게를 두었음이 분명해졌다.¹³⁾

리처즈의 끈덕진 수정요청에 조이스는 약간 양보를 하면서 『더블린 사람

13) 조이스는 “성인과 현인의 섬나라 아일랜드”라는 정치평론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다. “아일랜드가 만일 되살아날 능력이 있다면 잠부터 깨어라. 그렇지 않다면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무덤에서 영원토록 잠잠게 누워 있어라”(『비평문집』 174).

들』을 쓴 진의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해방을 위한 첫단계를 밟는다는 일념으로 정신사의 한 장을 썼다”(『서한선집』 63). 이로 보아 조이스는 약간의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일랜드인을 해방시키려는 노력만은 멈출 수 없었다. 파넬이 정치적으로 성취하려 했던 바를 조이스는 예술로 이를 성취하려 하였다. 그는 동포들에게 정신적인 해방의 필요성을 절감케하는 문학을 제공하는 최초의 작가가 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이스는 카이버드의 지적대로 “권력장악의 방편인 정치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대안으로 글쓰기를 선택하였음”(330)을 알 수 있다.

맺는 말

『더블린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피네건의 경야』(1937)에 이르기까지 조이스의 모든 작품은 더블린이 그 문학적 배경이다. 유럽의 대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두고 온 더블린이 그의 머리에서 떠난 날이 없었다. 트리에스테에 살 때는 이탈리아 신문에 조국의 정치적인 황폐상을 알리기 바빴고 파리의 아파트벽에는 리피강을 그린 동향인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집필로 피곤할 때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더블린의 가요를 즐겨 불렀고 아일랜드산 트위드 자켓을 평소에 아껴 입었다. 고국에서 보내오는 각종 일간지, 심지어 지방지까지 탐독하였다. 고향친구가 파리에서 “더블린에는 언제 가느냐?”고 물었을 때 “가다니? 내가 언제 더블린을 떠났단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놀라운 기억력과 자료수집을 통하여 더블린의 재현에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더블린이 파괴되더라도 그의 언어로 재건할 수 있고, 인구가 몰살한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으로 다시 채울 수 있다”(커런 243-4)는 말을 남기게 되었다.

시골만을 예찬한 부흥주의자들¹⁴⁾과는 달리 조이스는 한 때 대영제국 제 2의 도시였던 더블린만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몰두한 결과 20세기 문단의 “무관의 제왕”¹⁵⁾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누구나 공명할 수 있는 “사랑스러움”을 창

14) 부흥운동론자들의 시골예찬과 관련, 조이스는 러셀 George Russell(1867-1935)(필명 AE)의 신문 『아일랜드 농장 The Irish Homestead』을 “돼지들 신문”(엘만 164)으로, 아일랜드 민족을 “촌뜨기 민족”(『초상』 249)으로 비꼬았다.

15) 이 말은 『더블린 사람들』의 “선거사무실에서 맞은 파넬의 기일”에 나오는 조우 하인

조한 나머지 『율리시즈』의 날짜(6월 16일)인 블룸즈데이는 아일랜드에선 축일로 정착된 지 오래이고,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조이스 산업”은 번창일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기법,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라면 조이스는 단연 그 개척적인 거장임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기법적인 측면에서, 『더블린 사람들』에선 “마비”라는 주제에 걸맞는 “철저하게 궁핍감을 품기는 문체”를 구사하였고, 『초상』에선 주인공의 지적 성장에 부합되는 자유간접담론과 의식의 흐름적인 수법을 절묘하게 혼용하였다. 18개장으로 구성된 『율리시즈』에선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법을 달리하여, 전반부에선 대체로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쓰고, 후반부에선 장마다 그 기법을 각각 달리하는 가히 혁명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기법의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넣기에 이르렀다. 밤을 배경으로 한 『피네건의 경야』에선 밤의 세계에 걸맞도록 기존 영어의 문법을 해체하여 밤의 언어, 꿈의 언어라는 새로운 만국어를 창제하였다. 비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블린 사람들』에선 생중사적인 시민들의 깨침의 필요성을 투영하였고, 『초상』에선 부흥운동가들의 허상을 파헤치면서 “섬기지 않겠다”(117)는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기상을 창조하였다. 『율리시즈』에선 두 주인공의 이름의 합성어인 “스툼 Stoom”(17. 549)과 “블레핀 Blephen”(17. 551)이 암시하듯이 인종간의 반목을 초월한 인간상호간의 신뢰와 사랑을 제시하였고, 『피네건의 경야』에선 비코의 순환론의 이용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관 반복적이라는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조이스가 파리에 있을 때 동향인 후배이자 당시 문학지망생이던 파우어가 찾아와서 “아일랜드 사람이 아닌 프랑스인풍으로 글을 쓰고 싶다”고 하자 그는 필쩍 뛰었다. “자네는 아일랜드인이니 만큼 아일랜드 전통대로 써야하네... 핏속의 것을 써야지 머리속엿 것을 써서는 안되네.” 민족주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모든 훌륭한 작가들처럼 자기도 국제적으로 쓰고 싶다고 파우어가 우기자 조이스는 점잖게 타일렀다. “그들도 모두 자기나라 일부터 먼저 썼네. 민족주의의 강도가 높으면 결국엔 국제적이 되고 만다네.” 그러고는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더블린에 관하여 쓰네. 더블린의 심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세계의 모든 다른 도시의 심장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네.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깃들이기 마련이니까”(엘만 505).

즈가 파넬을 예찬하는 시에서 쓴 말이다(134).

타라를 기억하는 문학인은 적어도 더블린을 모르는 문학인은 거의 없다. 식민지의 피폐한 도시에 불과하던 더블린을 조이스는 펜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한 런던, 파리, 베니스보다 더 큰 유럽적인 도시, 아니 국제적인 도시로 우뚝 세웠다. 세이머스 딘의 말대로 “식민지적인 문화가 제국주의적인 예술을 길러낸 것이다”(172). 타라적인 황금시대 재현의 꿈은 호울리헛을 거쳐기에 가능했다. 이런 의미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적 상황의 한계를 거부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딘 176)가 아닐 수 없다. 고전적인 잣대로 조이스의 정치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조이스는 “글쓰기를 최고의 정치행위로 본 문학적인 혁명가”(페어홀 63)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이스는 과연 글쓰기로 자기를 낳아준 민족의 은혜에 보답하였는가? 다시 말해, 아일랜드인들의 정신적인 해방에 얼마만큼 공헌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 13회 국제 제임스 조이스 학술회의에서 행한 1992년 당시의 아일랜드 대통령의 환영사는 그 답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블룸의 날이 빠른 속도로 제 2의 국경일로 정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조이스의 천재성과 예술적 진지성에 대한 우리들의 서약이자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성과 자신감에 대한 서약이다. 우리는 이제 조이스가 돌고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쳐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통성에 도전하여 안일을 기꺼이 분쇄한 예술가에게 감사할 뿐이다. 조이스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우리를 위선과 마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예술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전의 가능성은 상상마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새 유럽의 대동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제 지향적인 국가이다. 전형적인 유럽인이었던 조이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과 발전에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로빈슨 x iii)

(충북대)

인용 문헌

- Abrams, M. H., e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Fifth edn. Vol. 2. New York: Norton, 1986.
- Curren, C.P. "The Obituary Memoir of James Joyce." *Irish Times*, 14th Jan., 1941. In *A Bash In the Tunnel: James Joyce by The Irish*. Ed. John Ryan. Dublin: Clifton Books, 1970: 243-245.
- Deane, Seamus. "Joyce and Nationalism." In *James Joyce: New Perspectives*. Ed. Colin MacCabe. Sussex: Harvester, 1982: 168-183.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P, 198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n., Revised and Enlarg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Viking Critical Library, 197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Viking Critical Library, 197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Modern Classics, 1986.
- _____. *Finnegans Wake*. London: Faber, 1939.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2.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1. Ed. Stuart Gilbert. London: Faber, 1957.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2.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1966.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5.

- Kelly, Joseph. *Our Joyce: From Outcast to Icon*. Austin: U of Texas P, 1998.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The Literature of the Modern Nation*. London: Jonathan Cape, 1995.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0.
- Power, Arthur. “James Joyce - The Internationalist.” In *A Bash In the Tunnel: James Joyce by the Irish*. 181-188.
- Robinson, Mary. “Welcome Address by the President of Ireland on the Opening of the Thirteenth Int’l James Joyce Symposium, 15 June 1992.” In *Joyce in the Hibernian Metropolis: Essays*. Ed. Morris Beja and David Norris. Columbus: Ohio State UP, 1996: xvii ~ xviii
- Welch, Robert, ed. *The Oxford Companion to Irish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96.

Abstract

“the shortest way to Tara was *via* Holyhead”: Joyce’s Nationalism

Sheon-Joo Chin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James Joyce’s nationalism through the examination of his attitude towards the Irish Literary Revival Movement and his purpose of writing *Dubliners* as revealed in his letters to Grant Richards, English publisher of the book. The article is based on the fact that lots of his literary utterances show him to be a communal writer rather than an individual one.

The Irish Literary Revival was in full swing when Joyce was a college student in the early 1900’s. However, since he was deeply dismayed at the provincialism of the Irish Literary Theatre which represents the Revival Movement he wrote an indignant essay entitled “The Day of the Rabblement,” in which he manifested his cynical attitude toward the movement. Protesting against the Theatre’s adherence to chauvinistic repertoires, he accused of its total indifference to the Continental playwrights such as Ibsen, Hauptman and Tolstoy. He concluded the essay by arguing that, if Irish directors are not bold enough to break free from parochialism, they would remain “the rabblement of the most belated race in Europe”

The analysis of the correspondences with Grant Richards turned out that Joyce wrote *Dubliners* in order to awaken his fellow Irish people from their “hemiplegia or paralysis” which resulted, he thought, from the colonial controls of the two imperial powers: the British Empire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He was concerned more in the victims of imperialists than in the oppressors. It is evidenced in his calling the book “a series of *epicleti*” or “my nicely polished looking-glass.” It was his ultimate goal to facilitate the course of Irish civilization by letting his fellow countrymen have one good look at themselves in his polished looking-glass. In other words, the composition of the

book was a means of his spiritual liberation of his country from the two imperial oppressors.

Joyce left Ireland for the Continent to realize his artistic aims and wrote constantly about his home city beginning from *Dubliners* up to *Finnegans Wake*, and finally made a success in establishing Dublin as a mecca of the modern world literature. Now in Ireland does Joyce enjoy adoration and reputation as a national hero as endorsed by the annual nation-wide celebration of the Bloomsday, the use of his portrait in the 10-pound bank note being issued by The Central Bank of Ireland and so for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reland acknowledged on an important occasion that the current national pride and progression would have been retarded without Joyce's efforts to liberate Irish people from hypocrisy and paralysis.

To sum up, Joyce the global-minded man was a literary revolutionist for whom writing represented the supreme political act.